



항공작전사령부 군중참모 지원 법사가 FTX 훈련 중 이동간 피습당해 총상을 입은 것으로 가정한 부상관의 곁을 지키며 응급처치 후 안심시키고 있다.

“걱정하지마세요. 당신 마음에 부처님 계시니까요”

한국군·미군 군중병과 최초 한미 군중 야외기동훈련(FTX) 현장

“이날 수송차량이 적군에게 피습당했다. 부상자가 발생했다. 간이수술센터로 수송하도록 하겠다.”

폭탄이 터지는 위급한 전시상황, 피탄된 군 수송차량 안에서 사경을 헤메는 장병의 손을 꼭잡아주는 것이 있었다. 바로 군중법사였다. 고통에 빠져있는 것도 잠시 마음을 편하게 하는 금경경의 말씀 한 구절에 이 장병의 표정은 편안해졌다.

국방부는 6월 16일 특수전사령부에서 군 사상 최초로 한미연합 군중 야외기동훈련(이하 FTX)을 개최했다.

보통 군중장교는 군에서 종교활동을 이끌고, 장병들의 인격지도 교관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들은 성직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신분도 지니고 있다.

최전선에서 병사들과 함께 하며 이들의 정신유지에 도움을 주고, 사후에는 천도식까지 치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다. 장병들이 실전 상황에서 심적으로 의지하는 이들이 군중장교이기 때문에 전세에서 실전을 겪는 미군은 겉프전 이후 군중장교의 비중을 점차 늘리고 있다.

이날 FTX는 이런 미군의 군중 운영능력을 배우고, 한국군의 군중운영능력 배양과 연합작전 능력을 다지는 자리였다. 한미 군중장교와 부상관들은 전시에 대량환자 발생을 가정하고 진지한 자세로 훈련에 임했다.

2박 3일간 열리는 이번 FTX에는 한국군 군중장교와 부상관, 미 육군 의무학교 교관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CH-47, UH-60 등 군용헬기를 비롯해 헬미차량 등이 동원돼 폭음과 공포탄이 오가는 실제 전투현장과 유사한 상황이 펼쳐졌다. 대항군으로 특전사 요원이 투입되고 실전에서 군중복무 경험에 있는 미 군중교관이 교육관으로 나서 노하우를 전수했다.

첫째날에는 대항군의 피습을 받은 위급상황에서의 역할과, 야전병원에서의 군중장교의 역할을 습득하는 자리가 마련된 이후 전사자를 헬기로 호송하는 과정이 진행됐다.

군중장교는 제네바 협정에 따라 무기를 소지할 수 없기에 전시상황에서는 더욱 위험에 처해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전우애와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중요인으로서의 사명감이 함께 했다. 수송차량에 탑승한 병사는 부상당한 전우를 차량에 실은 뒤 응급처치 후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피습된 차량은 신속히 이동 후 특전사 연병장에 마련된 간이수술센터에 도착했다. 센터 앞에는

100여 한미 군중장교 참가 실전상황서 심신치료 병행 소생 불가능 환자엔 기도 병사들 심적 의지에 확대 추세

M(minimal), D(delay), I(immediately), E(expected)의 표지판이 있었다. 경미한 환자부터 즉시 수술이 필요한 환자, 또 수술로는 소생이 힘든 환자까지를 구분한 표지판이었다.

교육관으로 나선 미군 밀러 중사는 각 단계별 역할

에 대해 설명했다. 수술로 소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된 10등급 환자에게는 의료진 대신 군중장교의 역할이 중요했다.

병원 내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해 사경을 헤메는 병사의 손을 정성스럽게 잡은 군법사는 불경을 외우기 시작했다. 숨을 멈추는 순간에도 군법사는 계속 기도로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다른 한쪽 병동에서는 큰 수술이 필요해 호송을 준비하는 팀이 있었다. 여기에도 군의관과 함께 군중장교가 동행했다. 미군의 경우 군중장교(채플린)가 보조의무관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며 호송 등에 동행한다는 설명이 진행됐다.

첫째날 훈련은 수송헬기에 다친 장병을 실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이날 훈련은 다종교인 한국 상황에 맞게 불교와 가톨릭, 개신교 등으로 나눠져 진행됐다. 대대별로 군중장교가 배치된 미군에도 불교 군중장교 3명, 이슬람 군중장교 6명, 유대교 군중장교 1명이 포함돼 있어 장병들의 종교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TX는 둘째날 각 종교시설에서의 전사자 추모의

식과 교전상황에서 군중요원이 전·사상자를 보호하고 돕는 방법을 숙달하는 자리와 셋째날 총평회 등이 마련됐다.

훈련에 참가한 상적 이상무 법사(육군 2사단 군중참모)는 “전시상황에서 군중활동은 다친 병사 당사자의 안정감과 희망을 주는 것과 동시에 같은 부대원들의 정신적 전투력을 고양시키는 역할이 크다”며 “무형전력을 간과하기 쉬운데 오히려 더욱 중요하기에 최근 군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상 김창모 법사(특수전사령부 군중참모)도 “미군은 군중병과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이들이 실전에서 겪는 경험을 공유하는 계기”라며 “전장상황에서 군중장교의 역할을 경험하는 의미 있는 훈련”이라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위트리 미 8군 군중참모(군목)는 “미군 군중 병과 사상 외국군과 함께하는 첫 연합훈련으로 향후 한미 군중병과의 교류 확대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수전사령부=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긴박했던 야외기동훈련 하루의 재구성

*시간대별 구성은 팀별 진행으로 다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00	미군과 공동으로 교육훈련 후 팀별 상황 돌입	13:20	대항군의 공격이 진행되고 각종 훈련용 수류탄과 포탄이 터지는 가운데 수송차량은 멈추지 않고 이동했다.	13:35	연병장에 마련된 간이수술센터에서 의료진이 소생불가로 밝힌 병사의 손을 군법사가 잡고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있다.	13:45	큰 수술이 필요한 병사를 후송전 의료진과 군중장교가 안심시키고 있다.	14:00	수송헬기가 도착하고 다친 병사를 의료진과 군중장교가 이송하고 있다. 첫째날 훈련은 수송헬기로 이송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	--------------------------	--------------	--	--------------	---	--------------	--	--------------	--

마하연투어 예약문의: 02) 365-7747

www.mahayeon.com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출발확정 상품	[호텔-일정-포함내용-식사: 타사비교 필수]	출발일	가격
미얀마/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7월 11일, 8월 29일, 9월 2일	1,490,000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6일	6월 24일, 7월 17일	1,390,000
[대한민국 영산] 북경/백두산	5일	7월 10일, 8월 30일	1,290,000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7월 10일, 8월 22일	1,290,000
[문수도량] 오대산/용강석굴	5일	7월 17일	1,390,000
[보현도량] 아미산/낙산대불	5일	7월 25일, 8월 18일	1,090,000
중남미 7개국	20일	7월 29일	11,590,000
미동부/캐나다	10일	9월 12일	2,610,000

미얀마

양곤/바고/시리암 5일
양곤/바간/헤호 5일
BEST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이티오 7일

티베트/부탄

티베트 6일
성도-라싸-야드록초-간체-시가체
BEST 티베트핵심하늘열차 8일
중경-라싸-장체-시가체-라싸-난주역-하늘열차
방콕/부탄 7일
카투만두-파로-팀푸-왕디포드랑-통사-푸나카-팀푸-파로-카투만두-나가르코트

인도/네팔/스리랑카

인도 9일
델리-라즈기르-나란다-보드가야-바라나시-아그라
BEST 인도 11일 (8대성지순례)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살리-나란다-쿠시나가르-룸비니-카필라바스투-쿠단-산카시아-아그라
인도/네팔 15일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마힌탈레-담블라-시기리아-플론나루와-알루비하라-켄디
BEST 스리랑카 완전일주 순례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블라-시기리아-플론나루와-켄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라오스

BEST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 7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베트남/캄보디아
[베트남] 하롱베이 **[캄보디아]** 씨엠렘 6일

태국

태국
방콕-아유타야-파타야 5일

대만/홍콩

대만 5일
대만 3대사찰 순례
대만/홍콩 5일
홍콩(2)-대만(1)-화롄

중국

BEST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항주 5일
BEST [관음도량] 항주/보타/낙가산 5일
BEST 상해/항주/구화산/보타산 6일
BEST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BEST [문수도량] 북경/오대산 5일
[민족의 영산] 백두산 5일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웨이 크루즈(수륙대체 가능)
대룡웨이, 화둥웨이, 위둥웨이
세계3대 트래킹명소 호도협
곤명/호도협/육룡실산 6일

세계 문화 탐방 베스트 상품

- 그리스 문화탐방 9일
- 하와이 문화탐방 6일
- 동유럽 문화탐방 8일
- 미서부 일주탐방 9일
- 서유럽 문화탐방 8일
- 미동부 일주탐방 9일

